



Peace BAR Festival

제42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Peace or Collapse: Planetary Society at an Inflection Point

2023

2023년 9월 21일(목)

경희학원

경희학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인간다운 세상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인류의 드넓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희의 설립취지입니다. 경희의 가치는 우주적 사유, 지구적 사유, 인간적 사유의 안목과 실천으로 더 나은 개인과 인류문명의 미래를 함께 여는 것입니다. 경희학원은 1949년 건학 이래 설립취지와 가치에 따라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법인 산하 각급 기관의 바른 경영, 바른 행정을 선도했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병설학교(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를 두고 있습니다.

취지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 기후, AI, 핵, UAP –

인류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 AI, 핵의 가공할 위협과 공포를 생생한 경험과 상상을 통해 실존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문명사적 복합 위기의 파국적 가능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예고는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They Knew》라는 책이 증언하듯, 정치권은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수술을 포기했다. 오늘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기의 심각성을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펄펄 끓는 지구(Global Boiling)로 격상해 경고하고 있다. 기후 과학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비영리 뉴스 기관 <Climate Central>에 따르면, 2023년 7월 인류는, 슈퍼 엘니뇨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인구의 81%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경험했다. 20억 명 넘는 사람들이 극단적 폭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지구 공동체는 아직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현실을 담아내는 정치적 사유와 구조, 제도와 문화는 여전히 ‘종전대로(Business-as-Usual)’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AI도 기후위기와 같은 수위의 변곡점을 가진 실존적 위협으로 볼 수 있을까? AI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이 많다. 자동차 혁명, 인터넷 혁명과 같이 인류는 기술혁신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인을 관리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이제까지의 인식 틀로 바라보는 것은 안이한 사유의 결과다. 현재 생성형 AI, 초-인공지능의 개발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인간 통제를 벗어나 자율 증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비생물적 주체’인 AI의 비선형적 진화가 문제다. 디지털 시대에서 쿼텀 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AI에 대한 인류의 기대는 크다. 그럴수록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도 깊이 숙고해야 할 과제다.

지난 핵 대치 시대에도 핵 확장 억제 레짐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AI의 폭발적 진화 추세 역시 우려할 만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가공할 기술을 규제할 레짐이 불확실하다. 올 여름, 과거 핵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오픈하이머 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오픈하이머>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거기에는 핵과 핵전쟁이 AI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윤리적 물음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인류는 '선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를 포함해 인간 지성과 정치가 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

인간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문명을 만들어왔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시간의 흐름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근현대의 지구 산업문명을 이룩했다. 이제 우리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수천억 개, 또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별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지구와 흡사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Goldilocks Zone)에 존재하는 많은 행성을 발견해가고 있다. 2021년 우주로 쏘아 올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더욱 경이로운 발견이 예견된다.

새로운 우주의 발견과 함께 외계 지적 생명체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은 미확인 항공 현상(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지구상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UAP의 존재, 외계 지적 생명체(Non-human Intelligence, NHI)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와 함께 발견됐다는 인간 아닌 생물체(Non-human Biologics)에 관한 증언이 있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 무수한 생명의 가능성과 우주적 진화의 미래.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류는 우주로부터 오는 예상치 못한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광활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지구 행성, 그 속의 인류사회. 기후, AI, 핵, 그리고 UAP. 인류 역사를 추동해온 의식과 정치에 관한 근원적 성찰이 요구된다. 위기에 처한 현실 인식과 정치의 무기력을 넘어 무엇을 새로이 발명해야 할까? 칸트가 말한 '이웃사랑의 책무',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말한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의 서사와 함께 어떤 인간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인가?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하고 이끌었다. PBF 2023을 통해 지구사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의식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이 협력해 전환 문명의 새 활로를 찾는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됐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의 설립자가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International Day of Peace, International Year of Peace)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 완화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할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신년 평화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다.

Peace BAR Festival 2023

프로그램

- 주제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Peace or Collapse: Planetary Society at an Inflection Point
-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09:00~16:30 세계평화 주간 2023년 9월 16일(토)~23일(토)
-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실시간 웹캐스트(pbf.khu.ac.kr)
- 주최 경희학원
-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9월 21일(목) 9:00 ~ 9:30	개회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
	환영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로에 선 미래, 전일적 실존의 지평”
기념 음악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나는 살고 싶어라(Je Veux Vivre, 샤를 구노)
기념 강연 9월 21일(목) 9:30 ~ 10:00	주제 AI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도전
	사회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강연자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념 대담 9월 21일(목) 10:00 ~ 11:30	주제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의식과 정치
	영상 상영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사회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패널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ES
라운드테이블 9월 21일(목) 14:30 ~ 16:30	주제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Post-SDGs를 향하여
	사회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발표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유엔 NGO 협의체 의장 아쓰후미 요코이 오카야마 대학교 부총장,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개발연구 석좌교수 야오 야오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소프트웨어센터 이사
	토론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공동회장 최동주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 본 행사는 온/오프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PBF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인사



조인원

- 경희학원 이사장
- 경희대학교 총장(2006~201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지표 심의위원(1997)
- 서울 NGO세계대회 삼자공동추진위원회 한국대표(1999)
- 세계시민포럼(WCF) 의장(2009)



닉 보스트롬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 옥스퍼드 마틴스쿨 인류 미래 연구소 창립소장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박사(2000)
- 『Superintelligence』 저술(2014)
- Foreign Policy 세계 100대 지식인



존 아이켄베리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 경희대학교 에미넌트 스칼라
- 국제학협회(ISA) 부회장(2019~2020)
-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정회원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과학 박사(1985)
- 슈뢰더-저비스상 수상(2002)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 유엔 NGO협의체(CoNGO) 의장
- 전 유엔 종교 비정부기구 위원회 회장
- 전 미국 유엔협회 뉴욕지구연합회 의장
-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자상 수상(1996)



아쓰후미 요코이

- 오카야마 대학교 부총장
-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개발연구 석좌교수
- Earth Charter International(ECI) 이사회 위원
- 영국 왕립예술학회 석학회원(FRSA)



야오 야오

- 중국 커뮤니케이션대학교 교수
- 중국 소프트파워연구소 이사
- 중국 Do-Planet 예술연구소 수석 고문
- 칭화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공동 박사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전쟁의 참혹한 현실 앞에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국익을 강화하는가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도모할 인류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 세기, 세계평화의 날 제안자인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의 날 5주년을 맞아 유엔본부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2011년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에 열린 UNAI-경희 국제회의에서 경희는 ‘평화의 또 다른 기회(Give Peace Another Chance)’를 열기 위해 인류애를 향한 ‘초월적 개입(transcendental engagement)’를 논했다.

그러나 평화를 실현한 지구사회는 여전히 멀다. PBF 2023은 지난 42년 세계평화의 날 역사를 반추하며 인류 사회의 실존 위기를 넘어설 평화의 마음, 정치 현실을 넘어서는 인류의식을 다시 요청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AI, 핵, UAP라는 지구적 난제를 풀어갈 새 문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굳어진 의식과 정치의 관행을 넘어 평화를 향한 다른 선택을 모색한다.

9월 21일(목) 9:00~9:30	개회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	
	환영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रो에 선 미래, 전일적 실존의 지평”
	기념 음악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나는 살고 싶어라(Je Veux Vivre, 샤를 구노)

기념 강연

AI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도전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 전반을 바꾸어놓았다. 문명을 발전시켰으나, 인간이 상상한 문명의 미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돌아왔다. 초지능의 불투명한 미래,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의 가능성, 재앙적 기후위기.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를 만들어갈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을 초청해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들어본다. 강연 주제는 “AI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도전(Challenges Along Path to AI Utopia)”이다. 과학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 윤리에 부합하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이고, 특정 국가와 기업을 넘어 인류사회의 평화 구현에 이바지할 방법은 무엇인가 들어본다.

9월 21일(목) 9:30~10:00	강연 주제	AI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도전
	사회	김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강연자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세계평화의 날 기념 대담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의식과 정치

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무한한 가능성. 그러나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인간 스스로 지구를 파괴하는 실존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래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 의식 혁명, 정치의 큰 변화만이 역사 문명의 틀을 바꿀 수 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은 권력자나 승자가 아니었다. 수백만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대학과 시민 모두 미래로의 책무 속에서 현 상황의 위기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희학원 이사장 조인원 박사,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경희대학교 Eminent Scholar 등 지구적 석학들이 의식과 정치의 새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9월 21일(목) 10:00~11:30	주제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의식과 정치
	영상 상영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사회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패널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ES

세계평화의 날 라운드테이블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Post-SDGs를 향하여

위기의 미래 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전환 기획이 절실하다. 물질적·경제적 풍요와 함께 인류사회의 평화를 지향해온 SDGs. 지구 공동체의 실존적 위기의 긴급성이라는 도전 앞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가 함께 조화를 이뤄 평화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구시민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Post-SDGs를 향한 미래 비전과 실천 기획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9월 21일(목) 14:30~16:30	주제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Post-SDGs를 향하여
	사회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발표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유엔 NGO협의체 의장 아쓰후미 요코이 오카야마 대학교 부총장,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개발연구 석좌교수 야오 야오 중국 커뮤니케이션선대 소프트파워센터 이사
	토론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공동회장 최동주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세계평화 주간 행사

UNAI ASPIRE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대학생 및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 및
경희 평화 포럼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한다. UNAI ASPIRE(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Education)는 대학생들의 학술적, 실천적 역량을 통하여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 교류 활동, 봉사활동, 캠페인 및 옹호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UNAI ASPIRE Kyung Hee는 매년 Peace BAR Forum을 통해 Peace BAR Festival의 핵심 주제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Forum을 개최해오고 있다.

일시·장소 2023년 9월 23일(토) 10:00~18:00,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주제	협력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위기: 기후위기와 탈세계화
대상	UNAI ASPIRE 회원 학생 및 일반 학생
주관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제42차 유엔 세계평화의 날 세계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청년들과의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기념행사 발전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시·장소 2023년 9월 16일(토),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주제	평화를 위한 행동: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열망
주관	유엔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 유엔한국학생협회(UNSA),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 유엔아카데미인팩트 어스파이어(UNAI ASPIRE)
협력	경희대학교

지구시민부스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활동 체험, 전파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해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일시·장소 2023년 9월 21일(목)~22일(금) 10:30~16:3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주제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참여기관	대외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미래희망기구, 사단법인 캠프,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교내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글로벌봉사팀 학생기획단, UNAI ASPIRE 경희지부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제9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백일장**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경희대 학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글쓰기 축제를 통해 후마니타스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하나가 되는 후마니타스 글쓰기공동체를 구현한다.

일시·장소 2023년 11월 8일(수) 10:00~19:00, 경영대학 오비스홀(111호)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센터(서울캠퍼스)

**세계평화
카드 뉴스 공모전**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카드 뉴스를 공모해 시상하고, 작품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해 세계평화에 관한 경희 구성원들의 의식을 고취한다.

모집 2023년 9월 4일(월)~17일(일) **시상** 2023년 9월 22일(금)

주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국제캠퍼스)

**생태시네마
토크 콘서트**

개발과 성장 중심의 현대문명이 자연에게 가한 파괴적 결과들을 성찰하고, 인간과 문명이 자연과 공존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태환경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듣는다.

일시·장소 2023년 9월 21일(목),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112호

주제	자연, 인간과 문명의 공존을 묻다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경희 평화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Peace BAR Festival의 의미를 조명하는 기회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성찰과 공감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시·장소 2023년 9월 21일(목)~22일(금), 서울캠퍼스 중앙로(교시탑~중앙도서관 입구)

주제	경희 평화운동의 역사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 시민
주관	경희기록관

Peace BAR Festival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로 42회를 맞는 기념행사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
1985	유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2011~2020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2020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1991~2000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유엔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21~

2021	전환 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2022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2023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